

## 연구논문

# 칼빈신학에 있어서 예정론과 속죄론의 위치

한 성 기

(안양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전에 『신학연구 제6집』(1997, 겨울호)에서 「제한속죄론에 대한 한 고찰」이라는 논제를 통해 예정론과 속죄론을 둘러싼 신학적 문제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sup>1)</sup> 당시의 논문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인간의 구원문제에 있어서 속죄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신학적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인 칼빈신학에 대한 재조명 속에 제한속죄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해보고자 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적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서 그 관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제한속죄론」에 대해 계속되는 논의의 맥락에서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를 그 위치성에 초점을 맞춰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 시켜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칼빈신학에서의 중심적인 교의(Calvin's

---

1) 한성기, 「제한속죄론에 대한 한 고찰」, 『신학연구』, 제6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1977, pp. 185-210.

central dogma)가 무엇인지를 살핀 후, 이어서 예정론과 속죄론의 위치성에 대한 고찰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칼빈신학의 중심적인 교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학 전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정론과 속죄론이 칼빈신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 칼빈이 그의 신학에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성에서의 고찰은 칼빈신학 연구자들의 신학적 이해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줄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중심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학설을 소개하면서 칼빈의 저작에서 표현된 그의 신학적 이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중심적 교의

오늘날 칼빈연구가들에게 있어서 칼빈신학에 대한 이해는 제각기 다른 견해를 통해 다양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양의 칼빈의 저작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는 난 문제 중의 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칼빈신학에 있어서 과연 중심교리(central dogma)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비교적 소장파 칼빈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리폼드신학교의 R. 갬블(Richard Gamble)은 「칼빈연구의 최근 경향」(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이라는 논문에서 칼빈신학의 중심적인 주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2)</sup>

여기에서 갬블은 특별히 1986년에 발표된 C. 파티(Charles B.

---

2) Richard C.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90",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d. by Wilhelm H. Neuser (Grands Rapids: Eerdmans, 1994), p. 105ff.

Partee)의 논문인 「칼빈의 중심적 교의 재고」(Calvin's Central Dogma Again)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의 경향으로서 「이중의 신인식」이 칼빈신학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해가 주류를 점유하고 있다는 소개와 함께 파티가 「그리스도와의 결합」(union with Christ)이 칼빈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견해들은 오늘날 칼빈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칼빈신학의 중심적 교의를 「이중의 신인식」이라고 보는 견해는 일찍이 E. 도위(Edward A. Dowey)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sup>4)</sup> 뿐만 아니라 파티가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중심주제라고 하는 이해 역시 J. 레이쓰(John H. Leith)의 이해와 동일하다.<sup>5)</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해와는 달리 칼빈신학의 중심 주제가 「성령론」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sup>6)</sup> 상당수의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이 삼위일체론적인 기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7)</sup>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웨스턴신학교의 M. 오스터헤

---

3) Ibid., p. 106ff.

Charles Partee, "Calvin's Central Dogma Again", in *Calvin studies III* presented at a Colloquium on Calvin studies at Davidson College and Davidson, North Carolina. John H. Leith, Editor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6), pp. 39-62.

4)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O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Expanded ed: Eerdmans Publishing Co LTD, 1994).

5)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pp. 15-17.

6) I. John Hesselink: *An Introduction to Calvin's Theology: Based primarily on Ford Lewis Battles Translation of Calvin's first catechism(1538)*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at Holland MI, 1990, Unpublished edition), pp. 180-181.

7) Arnold A. van Ruler, *Calvinist Trinitarianism and Theocentric Politics: Essays Toward a Public Theology*, trans by John Bolt, (Toronto Studies on Theology 38, The Edwin Mellen Press, 1989), p. 1ff.

른(M. Eugene Osterhaven)은 말하기를 “칼빈은 성경을 철저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읽었다”고 하면서 칼빈의 신학은 그 전체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sup>8)</sup>

사실 칼빈신학의 중심주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것이 「예정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sup>9)</sup>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 논하여지는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하며 또한 칼빈주의 밖에서 보는 시각도 역시 이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W. 니젤(Wilhelm Niesel)이 지적한 바 있듯이 T. 베자(Theodore Beza)와 그의 후계자들이 칼빈신학의 중심은 예정론이라고 간주했다.<sup>10)</sup> 또한 20세기 신학의 거장 K. 바르트(Karl Barth) 역시 예정론을 강조한 사람중의 하나였다. 특히 바르트는 예정론을 섭리론과 분리시켜 화해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F. H. 클로스터(Fred H. Klooster)는 『칼빈의 예정론』(*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1977)이라는 책에서 “예정론은 칼빈의 중심적인 교리는 아니라고 해도 그의 전체적이며 성서적 인식 하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칼빈신학의 중심 주제를 예정론과 기독론으로 보면서 절충적인 견해를 논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R. 뮐러(Richard Muller)는 말하기를

---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8) M. Eugene Osterhaven, *The Faith of the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2), p. 170.

9) Richard C. Gamble, op. cit., p. 105.  
Charles Partee, op. cit., p. 39.

1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The revised edition (Chr. Kaiser: 1957).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59.

11)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p. 15.

한국개혁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주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문화학회, 1993, p. 269.

“예정론적인 구조(선택과 그 실행)와 기독교적인 구조(성자와 그의 성육신)는 양자 모두 예정론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교리에 대해 병렬적인 발전과 상호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P. K 제윳(Paul K. Jewett)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다.<sup>13)</sup> 또 다른 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론과 이신칭의의 교리를 칼빈 신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sup>14)</sup> 특히 J. H 레인보우(Jonathan H. Rainbow)는 말하기를 “칼빈신학의 중심적인 교리는 기독교론에 있다”고 단호하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도 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상당수의 학자들 가운데는 칼빈신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교리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경우 칼빈 자신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또한 그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취한다.<sup>1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신학을 무엇인가 하나의 공통 요소에 의해 분석을 시도하거나 그 중심적인 교리를 추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자들의 연구 방법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결론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

12) Richard Muller, *Christ and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 38.

13) Paul K. Jewett, *Election and Predestina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5), p. 23.

14) Jonathan H. Rainbow, *The will of God and the Cross: An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John Calvin's Doctrine of Limited Redemption* (Pen: Pickwick Publications, 1990), p. 66.

15) Ibid, p. 67.

16) John H. Leith, op. cit., p. 15.

J. B. Torrance, "The Incarnation and 'Limited Atonement'" in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 55, 1983, pp. 83-94.

17) cf.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op. cit., p. 9-21.

여기에서 니젤은 제1장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여러 학자들의 칼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속해서 논의하며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그 과제로 남겨 두게 되는 분야인 것이다.

### Ⅲ. 칼빈의 저작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

사실 칼빈은 그가 혼자 독창적으로 예정론을 고안해 내지도 않았으며 또한 이를 맨 처음 명확히 설명하였던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예정론을 말할 때 칼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정론을 옹호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어떤 주장에도 결연히 맞서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이 중심교리이며 이 교리로부터의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그가 그의 전 신학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는 결코 예정론을 추상적이고, 경직되고, 이론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서술하지 않았다.<sup>18)</sup>

이와 같이 칼빈신학의 중심적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의 촉구와 함께 또 하나의 풀어야 할 과제는 칼빈의 예정론이 그의 신학적 이해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한때는 칼빈하면 「예정론」을 연상하는 시기도 있었으므로 그가 이 예정론을 그의 신학 체계가운데 어떻게 취급했으며, 또한 그 위치를 어디에 부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예정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논지의 중심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고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아래에서는 칼빈이 그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대하여 그의 저작에 표현된 예정론의 위치성을 집필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그의 대표적 저작인 『기독교강요』를 1536년 초판이후 수정과 증보 과정에서 신학의 각 항목을 조금씩, 그리고 적절하게 재구성했다. 그런데 칼빈은 후일 그가 것처럼 강조했던 이 예정론을

18) Fred H. Klooster, 「칼빈주의 예정론」, op. cit., pp. 267-268.

178 / 신학지평 제 14집 / 2001년

『기독교강요』의 초판에서는 주요 주제로 삼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약관 27세에 바젤에서 출판한 이 『기독교강요』의 초판에는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다만 예정론에 대한 언급은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조항을 해설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뿐이었다. 이는 아마 그가 예정론의 위치를 그의 신학 체계 속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1537년에 제네바에서 출판한 『기독교 신앙 안내』에서는 신앙론에 대한 설명가운데 예정에 대해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의 「이중예정」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던 것이다.<sup>19)</sup>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예정에 대한 개념은 1539년에 출판한 『기독교강요』 제2판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그는 이 「이중예정」의 교리를 신앙론, 사도신조,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 다음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는 기도론 성찬론, 그리고 교회론 앞에 위치하면서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칼빈은 1542년에 출판한 『제네바 신앙문답서』에서는 예정에 대한 언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제93문의 “공동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제96문의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거룩하다고 부르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단지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sup>21)</sup> 이는 아마 신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택보다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배려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후 칼빈은 1559년의 『기독교강요』 라틴어 판의 최종 판에서

---

19) 조석만 편, 『칼빈의 기독교신앙 안내』, 도서출판, 잠언, 1995, pp. 57-58.

칼빈은 여기에서 제13절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라는 항목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20) John H. Leith, op. cit., p. 124.

21) 이장식 편역, 『기독교신조사(1)』, 컨콜디아사, 1993, pp. 158-159.

예정론은 구원론의 마지막에, 즉 교회론 앞에서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은 예정론보다 길게 전개된 기도에 대한 논의 다음에 언급되고 있으며 이 예정론 다음에는 마지막 부활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여기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예정론을 섭리론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섭리론은 창조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갔다. 이는 섭리의 교리는 창조론 다음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예정론의 위치는 언제나 일률적이지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분명한 사실은 칼빈은 예정론을 그의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는 예정론을 창조론 속에서도, 또한 구원론의 앞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를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보면, 그는 이 예정론을 신학의 서두에서 논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보이는 하지만 그래도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신학 체계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를 『기독교강요』의 전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순서에 의해 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여러 저작물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러나 F. 클로스터(Fred H. Klooster)의 말대로 예정론이 칼빈신학의 중심 사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그의 전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22)</sup>

#### IV.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예정론과 속죄론의 순서

칼빈은 그의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련의 어떤 규칙을 정한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예정론을 속죄론 앞에서 언급하고 있다

---

22) Fred H. Klooster, 「칼빈주의 예정론」, op. cit., p. 269.



180 / 신학지평 제 14집 / 2001년

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칼빈은 예정론을 속죄론과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예정론이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라는 이분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그리스도의 속죄 앞에서 이 이분법적 성격의 예정론을 논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마저도 이분화 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정된 자에게만 유효하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에 예정된 자에게만 한정된다고 하는 「제한속죄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결과에 빠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칼빈의 후계자들은 이미 T. 베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졌다고 본다.<sup>23)</sup> 그러나 칼빈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이는 분명히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그의 예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작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와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예정론과 속죄론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552)

이와 같이 예정론을 속죄론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칼빈의 저작 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베르트 피기우스(Albert Pighius)와 시실리아 출신 게오르기우스(Georgius)와의 논쟁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에서의 예정론에 대한 논의이다.

칼빈은 그들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가지고 쓴 이 책에서 처음부

---

23)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op. cit., p. 9-21.

또한 베자 이후의 신학 해석에 있어서 연속성을 주장하며 옹호하는 최근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Paul Jewett, op. cit., p. 22ff와 Richard Muller, op. cit., p. 79ff; 175ff를 참고하라.

터 예정론을 전면에서 부각시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상당히 격한 어조로 그들의 공격에 대해 예정론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결과 속죄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제한속죄」에 가까운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피기우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 한 것은 그들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선한 일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향할 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안에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게 설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또한 복음서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sup>24)</sup>

칼빈은 여기서 말하기를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예정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또한 복음서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

---

24) John Calvin, *Calvin's Calvinism : Treatises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trans. by Henry Cole, Reprri (Grand Rapids : Reformed Free Pub. Ass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 by J. K. S. Reid (London : James Clark & Co, 1961).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문화협회, 1993, p. 165.

182 / 신학지평 제 14집 / 2001년

죄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을 추측하는 것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논의 속에서 예정론을 속죄론에  
앞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전  
제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 곳에서 이를 고백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것은 인간의 구원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할 분이 되신다는 것이다”<sup>25)</sup>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이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이를 고백하고 또한 강  
조”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어설프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비밀에 대  
하여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진리를 말  
하겠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sup>26)</sup>

이와 같이 칼빈은 강조하기를 오직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로부터  
터”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이  
다. 그래서 칼빈은 결론적으로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

25) Ibid, p. 166,

26) Ibid, p. 180.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은 우리가 갖는 믿음의 근원이자 동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딤후 1:17) 영원하신 빛 가운데 거하시며(롬 11:34) 오직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외에는(요 1:18) 아무도 그분의 뜻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 . . . .

선택은 믿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 진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선택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다.<sup>27)</sup>

여기에서 칼빈은 선택, 즉 예정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서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 순서 내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칼빈은 우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의 말에 의해 하나님을 논하고자 한다면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을 믿는 신앙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정론으로 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접근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순서가 된다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순서에 대해 칼빈은 스스로 변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자신의 신학적 전체로서 주장하였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2.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우리는 예정론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간 관념상이 교리는 모든 것에 앞서 신학의 앞부분에서 논해져야만 할 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순서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

---

27) Ibid, pp. 180-181.

28) 한성기, op. cit., p. 204.

184 / 신학지평 제 14집 / 2001년

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예정의 대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순서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강요』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로부터 그 능력을 얻은 후에야 만 효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의 확실함을 이것으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를 밟고 들어가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 깊은 바다에 삼켜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

이와 같이 칼빈은 선택, 즉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는지의 확증에 대한 여부는 복음을 믿어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칼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뢰감이 거기 안주해야 한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 이것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에(신 30:14) 대하여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구름 위를 달려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의 근신으로써 이러한 무모함을 제거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의 외형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감추인 은혜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증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로지 그 파이프를 통해서야 우

---

29) Inst, III-24-3.

리가 마실 수 있도록 생수가 풍족하게 흘러 나온다. 그러므로 이 원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sup>30)</sup>

여기에서 칼빈이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칼빈은 여기에서도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따져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증을 얻고자 하는 일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 “비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물론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선택의 능력을 복음신앙의 유무에로 한정시켜 버리는 것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순서를 따르려면 선택을 확실히 증명하는 표징들, 즉 부수적인 표징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sup>31)</sup>

이와 같이 칼빈은 구원에 대한 확신, 또는 예정에 대한 확증은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수적인 표징들”을 굳게 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부수적인 표징들”이란 복음과 그에 관한 설교, 또는 성찬과 같은 외적인 표징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칼빈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강화하기 위한 외적인 수단으로서 준비된 보이는 표징을 무효화하지 않기 위해, 또한 이것들을 통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표징들에 의한 신앙의 양육과 확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을 자세하게 탐구하거나 따지고 조사하는 것 같은

---

30) Ibid.

31) Inst. III-24-4.

186 / 신학지평 제 14집 / 2001년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대해 칼빈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는 자기 선택의 확실성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또한 만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의 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아버지 안에서도 그 확실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택하심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자신을 속임이 없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신다.”<sup>32)</sup>

##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그의 신학체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므로 “이 교리의 유익성”(the usefulness of this doctrine)과 “매우 달콤한 열매”(very sweet fruit)도 발견하게 되었다.<sup>33)</sup>

그러나 한편으로 칼빈은,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신학적 논의로서는 예정론을 그의 신학의 중심적인 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학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기 위한 신학적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도 결코 그의 신학체계 속에서의 위치부여 또한 전면에서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신학의 다른 항목을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정론에 종속한다는 이해나 또는 그 속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칼빈 자신이 예정론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그것이 신학의 다른 항목에 미칠 위험성을

32) Inst, III-24-5.

33) Fred H. Klooster, 「칼빈주의 예정론」, op. cit., p. 354.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 하는, 즉 위치성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의 사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문제의 사안이 위치보다는 영역과 또한 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치성과 관련된 우선 순위에 관한 논의는 하나님의 계획(예정)이란 영역과 그 계획의 실현(속죄)이라는 영역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예정론과 속죄론의 관계는 어느 쪽을 우선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분명해 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3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성기, op. cit., pp. 185-210까지에서 전개된 내용을 참고하라.